



‘하노이 국제 의료병원 및 제약 박람회’로 본 베트남 의료시장

- 인구 고령화와 중산층 증가로 인한 고품질 의료 수요 확대
-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 갖춘 한국 의료기기
- 진출시 철저한 인허가 준비와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확보 중요

VIETNAM MEDI-PHARM EXPO 2024 개요

하노이 국제전시센터(I.C.E, Hanoi)에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하노이 국제 의료병원 및 제약 박람회 (VIETNAM MEDI-PHARM EXPO 2024)'가 개최됐다. 하노이 국제 의료병원 및 제약 박람회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병원 서비스 및 의료 관광 등 의료 산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회로 총 8개국에서 42개 업체가 참여했다.

베트남 의료 산업 현황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 병원 시장은 2024년까지 99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7.5%를 달성해 2029년 매출액 규모가 142억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UNFPA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1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베트남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9년 11.9%에서 2023년 13.8%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병원들은 늘어나는 고품질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시설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노이 국제 의료병원 및 제약 박람회 현장 인터뷰

1) 한국기업 MIJU TECH

MIJU TECH는 의료용 내시경 장비를 제조 및 개발하는 업체로, 베트남 관련 업무 경험과 현지 파트너를 기반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M사 관계자는 베트남 의료시장이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사립병원은 약 38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용 내시경 시장은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품 특성상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라 낙후된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장 규모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R 사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의 특성상 인허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내에서 인허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베트남 협동조합과 미팅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국내 업체가 진출한 병원에서 제품 관련 불만 사례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에 대한 사전 교육과 철저한 AS 체계 구축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2) 중국기업 V사

V사는 베트남 의료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중국 바이오 제조업체다. V사 관계자는 현재 베트남 정부가 의료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 중이며, 베트남 의료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만이 의료기기 입찰에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이러한 입찰 규정이 폐지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의료 제품들도 동등한 조건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의료시장에서 각 국가는 제품 품목별로 강점이 다르지만, 한국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3) 베트남 바이어 VINPHACO

VINPHACO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 유통, 수출하는 업체다. 현재 V사는 신규 유통망 발굴 및 EUGMP(유럽 의약품 우수 제조 인증)을 보유한 업체를 찾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는 자사에서 제조가능한 제품을 검토하고자 참가했다. V사 관계자는 베트남 의료시장 소비자들이 현재는 합리적인 가격을 중시하지만, 점차 고품질과 높은 표준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베트남 소비자들이 의료 제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로 △고품질 및 높은 효과성 △합리적인 가격 △높은 표준과 인증 보유 △신뢰할 수 있으며 간편한 제품 형태를 언급하며, 이 중에서도 인증 보유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베트남 소비자들은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 수입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며, 사용이 간편하고 소비하기 쉬운 형태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일본 제품은 뷰티 제품에, 유럽(이탈리아, 독일) 제품은 비타민 및 미네랄과 같은 건강 제품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사점

베트남 의료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며, 합리적인 가격을 중시하던 기존 소비 트렌드에서 고품질과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앞으로 주요 인증을 갖춘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현재 베트남 의료시장은 공공 의료 시스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급증하는 의료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속도와 편리성을 중시하는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의료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인허가 및 국제 인증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아울러 독일, 미국 등 기존에 하이엔드로 여겨지는 제품 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크게 향상시킨 중국 제품들로 인해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을 수립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진화하는 베트남 개인 데이터 보호법, 최신 동향 및 이슈 분석

-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2026년 1월 발효 예정
- 성장하는 베트남 디지털 시장과 함께 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

베트남 개인 데이터 보호법령 및 신규 법안 주요 내용

개인 데이터 보호 법령(Personal Data Protection Decree, Decree No. 13/2023/ND-CP)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인 데이터를 보호를 명시하고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최초의 법률이다.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베트남 내의 기업 및 기관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적법성, 투명성, 제한된 범위내의 목적성, 취급의 최소화, 정확성, 통합성, 기밀유지, 예측가능성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령은 데이터 주체에 대한 고지, 동의 획득 및 데이터 주체가 가지는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데이터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사용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를 받고 동의를 명시적으로 요청 받아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 주체의 동의가 없는 데이터의 수집, 이전,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데이터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검토 권리를 가진다. 동 법령은 베트남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다. 이외에도 베트남 시민권자의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사항과 관련된 규정 또한 언급하고 있다. 데이터를 이전하려는 주체는 정보의 이전이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서류로 작성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이전 대상 개인정보의 종류, 이전의 목적, 정보 전달자와 수령자의 책임에 대해서 명시해야 한다. 서류는 베트남 공공보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의 검토를 위해 데이터 처리 시작 이후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공공보안부는 조건에 맞지 않는 모든 국경간 데이터 전송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금년 9월에는 개인데이터보호법(Law on Personal Data Protection) 초안이 신규 발표되었다. 해당 법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동 법은 개인 데이터 보호 법령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마케팅 서비스, 광고, 빅데이터 처리, AI, 클라우드 컴퓨팅, 피고용인의 관리 및 채용, 금융 및 신용 데이터, 헬스케어, 보험 등의 분야를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법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정보 거래 금지’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의 거래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및 처벌을 받는다. 또 다른 주요 조항은 ‘정보 주체의 권리’ 조항으로 이 조항은 데이터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정부의 예외적 수집 권한’ 조항은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을 이유로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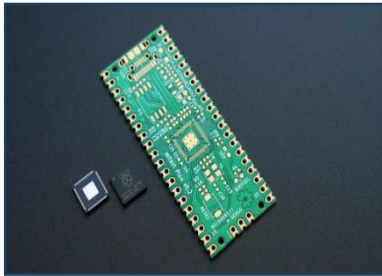
우리 진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주요 이슈

우선 적용대상 조항에서 유의할 점은 베트남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베트남에서의 개인정보처리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경우 본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보주체의 동의 조항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 상 수집되는 정보, 사용 목적, 처리 방식 및 처리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정보주체(고객)에 설명하고 동의를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정보주체가 각 목적 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일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통지 조항에서 유의할 점은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거나 민감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 정보 처리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마케팅 및 광고 조항에서는 사업 영위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경로를 확인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감정보 보호 조항에 의하면 민감정보 처리 전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만큼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사항 통지 조항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 주체는 위반 사항 발생 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관리 주체 또는 처리 주체는 위반 사항 발생 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베트남 공안부내 DCHC (Department of Cyber security and Hi-tech Crime Prevention)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리의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개시 시점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문서를 준비해 60일 이내에 공안부 DCHCP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제출한 문서 상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의 변경 통지를 해야 한다. 국경 간 정보 전송 영향 평가 조항에서도 정보 전송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시점에 국경 간 정보 전송 영향평가 문서를 공안부 DCHCP에 제출해야 하며 내용 변경 시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한편, 발효일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및 담당 부서를 즉시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유예기간 2년의 종료 시점에 맞춰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으로 별도의 패널티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별도 행정 처벌에 관한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므로 해당 시행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지난 2023 시행될 개인 데이터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저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데이터 침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엄격한 의무를 지게 되며,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업들은 데이터 관리 및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확대 되는 것이다. 향후 베트남 정부는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외국과의 법률 정보 교환 및 기술 이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법령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을 이유로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두고 있는데, 이는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종합적으로, 베트남의 개인 데이터 보호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규제의 성격이 있으나, 중장기적인 베트남내 디지털 경제 발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은 향후 베트남 정부의 개인 데이터보호 관련 정책방향이 민간과 정부의 각기 다른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기업의 대응전략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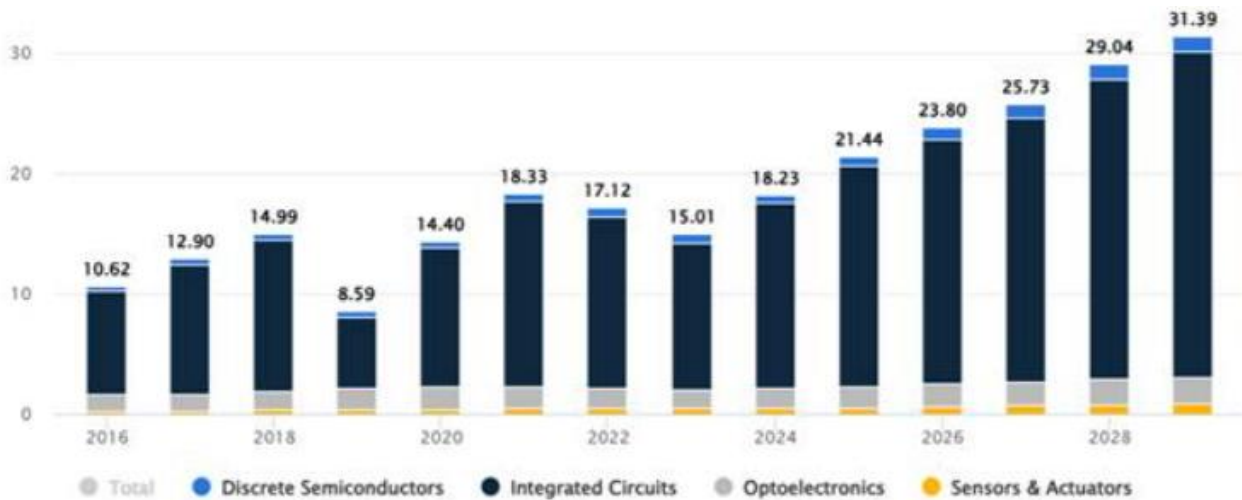
베트남 반도체 공급망의 전망,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 베트남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1.48%로 성장할 전망
- 베트남 정부의 반도체 육성 계획 살펴보기

베트남 반도체 산업 현황

베트남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6년 106억 2,000만 달러에서 2023년 150억 1,000만 달러로 41.34 % 증가했다. 2019년, 2022년, 그리고 2023년 베트남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감소했는데 이는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및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많은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시도와 함께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에 베트남 반도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1.4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반도체 시장 규모 동향 및 전망> (단위: US\$ 십억)



주1. 2024~2029년의 값은 추정치[자료: Statista,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베트남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1018/QD-TTg)

1단계(2024~2030년)

- 베트남은 FDI를 선택적으로 유치할 것이며, 최소 100개의 설계 회사, 1개의 소규모 반도체 칩 제조 공장, 10개의 패키징 및 테스트 시설 설립을 목표로 한다.
- 다양한 산업을 위한 특수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여 연간 반도체 산업 수익 250억 달러 이상 달성 및 부가가치 기여도 10-15% 달성을 목표로 한다.
- 또한, 전자 산업 연간 수익 2,250억 달러 초과 및 부가가치 기여도 10~15% 달성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 부문 50,00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대학 졸업자 확보를 목표로 한다.

2단계(2030~2040년)

- 최소 200개의 설계 회사, 2개의 반도체 칩 제조 공장, 15개의 패키징 및 테스트 시설을 설립하여 전문 반도체 제품 설계 및 생산에서 자율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연간 반도체 산업 수익 500억 달러 이상, 부가가치 기여도는 15-20% 달성을 목표로 한다.
- 전자 산업 연간 수익 4,850억 달러 초과 및 부가가치 기여도 15~20% 달성을 목표로 한다.
- 반도체 부문 10만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대학 졸업자 확보를 목표로 한다.

3단계(2040~2050년)

- 최소 300개의 설계 회사, 3개의 반도체 칩 제조 공장, 20개의 반도체 제품 패키징 및 테스트 시설을 설립하여 반도체 분야 연구 개발 방법을 마스터 할 계획이다.
- 연간 반도체 산업 수익 1,000억 달러 이상, 부가가치 기여도는 20~25% 달성을 목표로 한다.
- 전자 산업 연간 수익 1조 450억 달러 초과 및 부가가치 기여도 20~25% 달성을 목표로 한다.

시사점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해 떠오르는 반도체 생산 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시행되며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1.4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최대 수출국이며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대 한국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50.05%를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 반도체 산업의 주요 고객 중 하나가 한국이며,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와 무역 의존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을 생산 및 수출입 하는 한국기업 관계자 P씨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해결책으로서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투자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씨는 회사의 수출입 액수와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밝혔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발표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지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과 지속적인 반도체 산업 규모 증가를 위해서는 전력 부족, 전문적 반도체 관련 지식을 갖춘 인재 부족, 기술 기반 취약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정책 및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FDI 유입 증가 요인과 글로벌 제조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

- 미국의 대중 무역규제 정책 반사이익으로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 지속 증가
- 대미 우회 수출에 대한 조치 여부, 자국 부품·소재산업 발전 문제 해소돼야

2024년 1~11월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 동향

2024년 1~11월 기준, 베트남에는 310억 달러 이상의 FDI 자본이 유입됐으며 신규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가장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에너지, 전기·전자, 일반 부품 제조 분야에서 다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신규 및 증액 투자되고 있는 모습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1월 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3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035개 신규 프로젝트가 등록(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증가) 됐으며, 등록 투자액은 약 173억9000만 달러(0.7% 증가)에 달한다. 또한 1350개 프로젝트에서 99억3000만 달러의 자본금 증액을 진행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9% 증가한 수치다. 특히 11월 한 달에만 약 41억2000만 달러의 투자가 등록되며 지난 9월(42억 6000만 달러)에 이어 월별 40억 달러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는데, 미국 대선 이후에도 대베트남 투자 관심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한 글로벌 제조 공급망 진입을 위해 해결돼야 할 베트남의 과제

World Bank는 '베트남 2045: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무역의 중요성, 고소득 미래로 향한 길'이라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 역시 고소득 국가의 반열에 올라설 가능성이 있으나, 값싼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존하는 현재의 베트남 모델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인 공급망 중 최종 조립 과정 참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생산 및 개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베트남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① FDI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약한 연계성 ② 숙련공 및 기술인력 부족 ③ 부족한 에너지 자원 및 수송 인프라 ④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고탄소 집약 생산 모델 등 4개를 꼽은 바 있다.

무엇보다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국내 부품, 소재산업 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 역시 과거 시행령(Circular No. 111/2015/ND-CP)을 통해 '베트남 부품소재산업 발전 정책'을 내놓았으나 지난 10년간 베트남 내 국내 산업 기술발전은 상당히 더딘 편이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베트남 내 부품·소재 산업이 국내 생산 및 소비 수요의 약 45%를 충족하고 이를 통한 수출가치 창출 비율을 25%까지 달성할 목표를 세우고 더욱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베트남은 미·중 경쟁으로 인해 다수의 다국적 제조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나 부품·소재 산업 관련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국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현재 베트남의 부품·소재 기업들 대부분은 섬유 및 의류, 신발, 목재 가공, 일부 기계류 제품 생산 분야에 치중돼 있으며 FDI 기업이 보유한 초정밀, 복합 첨단 분야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들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개발을 하기에 기초 기술 습득 시간이 소요되고 자본 투자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인력 공급 측면에서도 현재 첨단 기술 및 고도 기술 숙련 근로자 수는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각광받는 반도체 및 첨단기술, 자동화 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베트남의 기업과 대학 및 기술학교의 연계가 부족하며 대학에서는 실무지식 및 엔지니어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해 기업이 졸업자를 채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기술 교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베트남의 기술 연구 및 발전은 정부의 지원 정책보단 민간 기업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 자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기술 연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FDI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국내 부품·소재 기업들의 국산화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섬유, 의류 기업의 현지화율이 약 40~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가 15%, 기타 첨단산업의 국산화율은 5% 수준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트럼프 집권 2기, 미국의 무역규제와 베트남의 위기 요인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에 맞춰 미국은 대중국 및 글로벌 수입 규제를 실시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와 기타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일반 10~20% 관세는 베트남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베트남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 고율의 수입세 부과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촉발해 중국에는 소비자 수요 감소 및 수입 감소로 이어져 베트남 수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대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미국은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무역적자(2022년 이후 1000억 달러 이상)가 발생하고 있는 등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대상국에서 베트남은 중국, 멕시코 다음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수록 미국의 대베트남 수입 규제는 더욱 강화될 소지가 충분하다.

시사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공급망의 탈(脫)중국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베트남은 생산지를 중국 밖으로 옮기려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이러한 탈중국 외국인 투자기업의 집중 투자는 기업 유치 이익과 별개로 관세 및 무역 제한 조치 등으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 미·중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무대에서 베트남의 입지를 강화하고 진정한 글로벌 공급망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베트남이 글로벌 제조 공급망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 발전 및 내재화, 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 기술 인력 양성, 정부의 R&D 지원 등 아직 여러 부분에서 개선 되어야 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중요한 부분은 베트남은 우리 기업 약 9000개 이상이 진출한 한국의 해외 제조 투자 거점으로 향후 베트남이 받을 대외 통상환경 영향을 우리 기업들이 직접 받게 된다는 점이다. 그 영향이 긍정 또는 부정적일지는 아직 유동적이나 현재의 글로벌 무역 및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베트남과의 협력 및 공동 대응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 역시 변화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트남 의약품 시장의 성장과 변화

- 베트남 의약품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2029년까지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약학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전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규제 도입

시장동향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46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9년까지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9년 62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의약품 시장은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으로 나뉘며, 2023년 기준, 전문 의약품 시장이 전체 의약품 시장의 65.5%, 일반 의약품은 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의 약국 수는 2019년 492개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2698개를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의 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오프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오프라인 약국 브랜드

- 파마시티(Pharmacy): 파마시티는 2011년 처음 설립됐으며 2024년 7월 기준 베트남 전역에 9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파마시티는 향후 5000개의 점포를 개설할 계획이며, 향후 5년 이내에 15억 달러 (약 1조97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롱쩌우(Long Chau): 롱쩌우는 2017년 기술대기업인 FPT 리테일에 인수됐으며 인수 당시에는 4개의 매장만 운영하고 있었다. 롱쩌우는 2026년까지 일반의약품 소매시장 점유율 30%, 전국 매장 수 33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안강 파마시(An Khang Pharmacy): 안강 약국은 2024년 기준 326개의 약국이 있으며 2002년 설립됐다. 초기 브랜드명은 푸크 안강(Phuc An Khang)이었으나, 2017년 베트남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 유통 및 판매 회사인 모바일 월드에 인수되며 안강 파마시로 이름이 변경됐다.

시사점

베트남 의약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의약품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23년 의약품 시장 규모는 46억6000만 달러에 달하며, 2029년까지 연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제약회사 관계자 A 씨는 "이러한 의약품 수요는 늘어나는 노년층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뿐만 아니라 비타민, 건강 기능 식품 등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개정된 약학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규제되면서, 오프라인 약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약국 브랜드인 파마시티, 롱쩌우, 안강 파마시는 각각의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의약품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베트남 집의 디지털화

- 도시화와 중산층 확대로 인해 증가하는 베트남 스마트홈 시장
- 베트남의 주요 스마트홈 기기 브랜드는?

베트남 스마트홈 기기 트렌드

베트남의 스마트홈 기기들은 비교적 보안과 홈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제품들이 많으며 특히 가격과 사용법 등을 소개하는 영상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현지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과 손쉬운 사용법과 베트남어 지원 등과 같은 편리함을 중요시하기에 이와 관련된 영상들도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인테리어 회사 종사자 A 씨는 최근 기업 고객들 사이에서도 스마트홈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개인 고객들은 주로 20~30대 사이의 젊은 세대가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A 씨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홈 기기 사용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인테리어 업계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다양한 스마트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스마트홈 시장 관련 정부 규제와 법률

베트남 정부는 스마트홈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규제와 법률을 제정했다. 결정문 Decision 950/QD-TTG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중북부, 중남부, 메콩 델타 지역에 걸쳐 스마트 시티 체인을 구축하고, 하노이, 호치민, 다낭, 껀터를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결정문 1132/QD-TTG는 2025년 디지털 인프라 전략을 승인하고 2030년 방향을 제시해 스마트홈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확산 지원을 안내한다. 결정문 749/QD-TTG는 국가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홈 솔루션의 혁신을 촉진하고, 결정문 258/QD-TTG는 건설 활동에 BIM(건축 정보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승인해 스마트홈 구축 시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시사점

베트남의 스마트홈 트렌드는 정부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4차 산업 혁명 정책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와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시스템이 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 환경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2020년 1억219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23년 2억759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시장 규모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스마트홈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경쟁 중이며 베트남의 건축 및 건설 활동에 대한 규제와 법률이 까다롭기에 충분한 시장조사와 전문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4 베트남 엑스포 참관기

- 베트남 엑스포,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
- 인터뷰로 알아보는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사유

호치민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ECC)에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22회 베트남 국제 무역 박람회인 ‘2024년 베트남 엑스포(VIETNAM EXPO 2024)’가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현대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약 1600개의 부스가 유망 소비재, 가전제품, 엘리베이터 부품, 정원 기구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다. 금번 전시회는 미국, 한국, 독일, 일본, 태국 등 22개 국가 및 지역에서 8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시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의 AI 및 IoT 기술 트렌드, 도시 및 농촌 개발의 미래 동향에 초점을 맞춘 조경 건축 전략 등 다양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됐다.

현장 인터뷰

1) 한국기업 A사

매트와 실내용 같은 생활용품을 한국에서 전부 생산하고 판매하는 한국 기업 A사는 이미 일본, 미국, 러시아,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베트남 시장 진출 사유로 베트남의 증가하는 소득 수준, 한국과 비슷한 생활 양식과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언급했다. 또한, 베트남 진출 관련 고충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바이어 발굴’을 선택했다. A사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베트남에 실내용 매트를 유통할 바이어를 찾고 자신의 브랜드를 더욱 널리 알려 브랜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 한국기업 B사

한국의 주방용품 회사인 B사는 디자인과 제조를 모두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대만, 미국, 중국, 스페인, 호주, 홍콩 등에 진출했으며, 하노이의 파트너사와도 독점 계약을 맺고 현지 판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B사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하노이뿐만 아니라 호치민에도 자신들의 제품을 알리고 판매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 참가했다고 밝혔다. 진출 사유로는 1억 명 이상의 인구로 인해 주방용품에 대한 수요가 크고, 한류 열풍에 기인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를 꼽았다. B사는 베트남 시장 진출 어려움으로는 바이어 발굴, 환율 변동성 및 민감도, 바이어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언급했다.

시사점

베트남의 소비재 시장은 경제 성장과 함께 중산층 비중의 증가, 디지털화로 인한 온라인 쇼핑 등의 새로운 소비 형태가 활성화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베트남 엑스포(VIETNAM EXPO 2024)와 같은 대규모 전시회는 이러한 현지 시장의 트렌드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외 기업에는 시장 진입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베트남 시장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인사이트와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 '12년의 기다림'...호치민시 지하철 1호선, 드디어 개통

호치민시의 지하철 1 호선 벤탄 수오이띠엔 (Ben Thanh-Suoi Tien) 이 12 년의 공사 끝에 개통됨. 호치민시도 시철도관리위원회 (MAUR)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벤탄역에서 첫 전동차를 운행하며 개통을 공식화했음. 부이 쉐운 끄엥(Bui Xuan Cuong)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통이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 이토 나오키 (Ito Naoki) 주베트남 일본대사는 1호선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 지하철 요금은 거리별로 7,000~20,000 동이며, 다양한 승차권 형태가 제공됨. 개통일로 부터 30 일간 지하철과 연결된 전기버스 17개 노선이 무료로 운행됨.

[Insidevina 12.23]

▶ 베트남, '2025년 아시아 15대 경제대국' 선정...12위

베트남은 2025년 아시아 15대 경제대국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규모는 5,060 억달러로 아시아 12위에 오를 예정. 이 보고서는 동남아 시장조사업체 시시아스탯(Seasia Stats)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베트남은 제조업 의급성장과 외국인 투자 증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19조 5,000억 달러로 아시아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인도, 한국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란이 각각 13~15 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Insidevina 12.20]

▶ 베트남, 200달러이하 스마트폰 판매 급증...2G서비스 종료 영향

2024년 3분기, 베트남에서 2G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0 달러 이하 저가형 스마트폰 판매가 급증함.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Counterpoint Research)에 따르면 ,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중 600 달러 이하 제품이 83% 차지했으며 , 200 달러 이하 제품의 점유율은 51% 로 증가. 삼성, 샤오미, 오포 (Oppo) 브랜드의 스마트폰이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G 서비스 종료로 인해 보급형 4G 스마트폰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베트남은 10월에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및 5G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조치를 취했음. 또한, 베트남은 2028년까지 3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 2030년까지 5G 커버리지를 99%로 확대할 계획.

[Insidevina 12.20]

▶ 베트남 은행권, 예금금리 인상 지속...1년짜리 6%대 2곳

지난달 베트남의 10 여개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인상을 것으로 조사됨. 이는 수신 증가율이 여신 증가율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특히 아그리은행 (Agri Bank)은 12개월 미만 단기 예금금리를 0.51% 포인트 인상하여 4대 국영상업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그 외에도 여러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0.1~0.6% 포인트 상향 조정. 현재 1년짜리 예금상품에서 6%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은 GP 은행과 베트남 우리 은행 등 2곳임. 비엠클 은행(Vietcom Bank)은 내년 예금금리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Insidevina 12.16]

▶ 하노이시, 내년부터 ‘저배출구역(LEZ)’ 2곳 시범운영…노후차 통행제한

베트남 최대 명절인 팻(Tet, 설) 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50 만동(약 19.7 달러) 미만의 저가 실속형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음. 내년 팻 연휴는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확정되었으며,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팻 선물 구매력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대형슈퍼마켓들은 9만 9,000 동(약 3.9 달러)부터 130만동(약 51.2 달러)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특히 15만~50만동 가격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오리온 비나와 뜨엉안(Tuong An)등 식품업체들은 실속형 상품 공급을 늘리고 있으며, 오리온 비나는 지난해보다 20~25% 증가한 실속형 상품을 출시했음. 시장조사업체는 내년 팻 기간 일용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성비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 호치민시와 하노이시는 각각 전년 대비 4.5% 증가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음.

[Insidevina 12.13]

▶ 베트남, 개인정보 노린 피싱 공격 ‘기승’… 상반기 4 만여건 동남아 3 위

올해 1~11월 베트남의 교역액이 7,155 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하며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이 중 수출은 3,699억 3,000만 달러, 수입은 3,456억 2,000만 달러로 각각 14.4% 와 16.4%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243억 1,000만 달러 기록. 현지 기업 수출은 1,038억 8,000만 달러로 20% 증가해 전체 수출의 28.1%를 차지하고, 외국 기업의 수출은 2,660억 5,000만 달러로 12.4% 증가해 71.9% 차지. 36개 핵심주력 상품군 중 7개는 각각 100억 달러를 초과하며 전체 수출의 66.5%를 차지. 수입 측면에서도 현지 기업이 1,260억 5,000만 달러로 18.5% 증가했고, 외국 기업은 2,195억 7,000만 달러로 15.2% 증가. 미국은 1,089억 달러로 최대 수출 시장, 중국은 1,302억 달러로 최대 수입 시장 지위 유지.

[Insidevina 12.13]

▶ 2024년 인플레이션 4-4.5% 수준 예상

2024년 인플레이션은 4-4.5%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3.5%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원인은 글로벌 에너지 및 식품가격 인상 및 태풍 야기 영향으로 국내 생산비용과 소비자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함. 베트남 정부는 내년에도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수준 관리를 위해 의료, 교육, 전기 등 공공서비스 가격 조정 및 소비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됨.

[Vneconomy 12.5]

▶ 2025년 GDP 성장률 7-8% 목표

총리는 2025년 GDP 성장률을 8%까지 향상시키겠다고 발표, 이는 국회에서 승인한 7-7.5% 목표보다 높은 수치에 해당됨. 정부는 차년도 1인당 GDP 목표를 약 4,900달러, 예산 적자는 GDP의 3.8%, 공공 부채 비율은 35-38%로 유지할 계획임. 베트남은 2024년 7% 이상의 GDP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이는 안정적인 거시 경제 수준 및 정부의 집중적인 인플레이션 관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Vneconomy 12.2]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Lam Son Clean Energy Production Complex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기업명 : PVPower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Lam Son Commune, Ninh Son Dist., Ninh Thuan Province, Vietnam ▪ 프로젝트 진행상황: Preparing for F/S report ▪ 프로젝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utilize advanced storage battery and pumped-storage hydropower technologies to convert the less stable solar power into a reliable and flexible electricity supply, thereby letting Ninh Thuan province to become the center of renewable energy. ➢ The complex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40 MW pumped-storage hydropower plant with six units; ➢ 3,500 MWp solar power project; ➢ 350 MW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 ▪ 세부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 F/S: Q3-Q4/2024 ➢ F/S: Q1/2024 ➢ Bidding, construction: Q3/2025-Q2/2026 ➢ COD: 2030



농협중앙회, 베트남 수출 확대 나서... 하노이 한국 농식품 소비촉진 행사 열어

농협중앙회는 지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고, 베트남 현지 주요 수입처 및 관계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하노이 한인마트(더마켓)에서 개최된 소비촉진 행사에서 농협은 농식품 할인과 함께 한국쌀과 가공식품의 특징에 대해 알렸다.



농협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하노이 소재 한인마트 등에서 약과, 떡 등 쌀 가공식품과 김치, 유자차 등 주요 수출 제품들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 농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케이마켓, 원마켓 등 하노이 주요 한인마트 및 aT 등 농업 유관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베트남 소비 트렌드와 현지화 방안을 청취했으며, 현지 맞춤형 상품개발과 유통망 강화 등 현지 유통사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https://www.thevaluenews.co.kr/news/187017>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최대규모 데이터 보유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 베트남

신지민 법인장

1. 알스퀘어 베트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알스퀘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는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입니다. 전수조사 기반 데이터와 공공 DB를 융합해 임대차 중개, 매입매각 자문, 자산 관리, 임대 대행, 투자 개발, 리서치&컨설팅, 건축,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2년 연속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 (Financial Times Growth Companies

Asia-Pacific 2021-2022)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알스퀘어 베트남은 베트남 최대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를 보유한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베트남 전역에 걸쳐 600개 이상의 산업단지, 12,700개 이상의 공장, 26,400개 이상의 빌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9개 성 건물의 99%를 커버합니다. 특히 하노이, 호치민, 다낭, 박닌, 하이퐁, 동나이, 빈즈, 롱안 등 베트남의 주요 산업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알스퀘어 베트남은 이처럼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와 인력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2. 주요 사업(생산품,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스퀘어 베트남은 단순한 부동산 중개를 넘어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풀케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유일하게 베트남 전국구 공단 및 공장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별로 파편화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600개 이상의 공단과 2만개 이상의 공장 정보를 직접 발로 뛰어 구축했기에 가능한 서비스로 하노이와 호치민 양쪽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지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인테리어 건축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부터 오피스와 공장 건축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 베트남 현지 기업까지 알스퀘어 베트남을 찾고 있으며, 신한베트남은행, 삼성전자베트남, VTK(LH) 등 다양한 분야의 선도 기업·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통상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은 베트남의 무역 환경에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높은 관세는 베트남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대미 무역 흑자가 높은 국가로, 이에 대한 압박이 예상됩니다. 반면에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포스트 차이나로 관심 받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미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하였고 지금까지도 중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화교 자금의 회사들이 베트남 진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영향으로 탈중국 이슈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은 그 반사이익을 누리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내부적 환경을 보면 베트남 정부의 제조산업 전환의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노동집약 산업군에서 빠른 속도로 첨단테크 산업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베트남 반도체 공장 설립을 요청하였고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에서 선호하는 테크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4년간 법인세 면세, 이후 9년간 50% 감면의 세금혜택 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 성정부에서는 글로벌 리딩 기업의 유치를 위해 현물 지원과 같은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까지도 합니다. 반대로 인력 집약적인 사업군의 베트남 진출은 과거에 비해 어려움이 커져 특히 하노이 인근의 박닌, 박장, 하이즈엉과 같이 인력집약 산업군의 법인설립을 불허하는 지방 성정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한국의 강소기업이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계획하신다면 베트남은 여전히 우선 순위로 검토할 국가라고 판단됩니다.

4. 법인 운영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알스퀘어는 100% 외투 신설 법인이다 보니 베트남 시장에 안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 또한 험난했다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 그 시점의 고민들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진출 당시에는 베트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시간이 약이라는 표현처럼 업력이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산업용 부동산 업무를 시작하면서, 베트남 행정기관과 업무를 같이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도 베트남 행정기관에 대한 얘기들은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행정 프로세스와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이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어, 한국의 경험치를 기반으로 베트남에서의 행정방식과 처리 시간을 예상했다 가는 적잖은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선은 한국과 베트남이 다름을 인정하고 베트남 행정 프로세스의 이해에 대한 학습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 정공법이 늘 정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변의 키맨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행정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고 행정처리 과정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비용은 발생할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의 무게를 잘 따져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현지에서 6년 이상 기업부동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저도 아직까지 관을 만나고 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지방 성 정부 행정 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성마다 행정업무 처리 방침이 제각각 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그러했으니,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했는데 왜 이번은 다르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새로운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가장 우선하는 것이 현지 행정프로세스 파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행정기관 또는 행정 기관이 소개해준 컨설팅회사와 인근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즉, 필요한 행정업무를 대관해줄 적절한 파트너를 확보한다면 시간의 문제는 해결되고 돈의 문제만 남을 것입니다.

5. 향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실 계획이신가요? 또는 계획하고 계시는 신사업이 있으신가요?

아직 알스퀘어 베트남법인은 한국 본사에 비해 업무의 스펙트럼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인테리어 시공만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알스퀘어는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베트남법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베트남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상업용 부동산 정보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가 실현된다면 베트남 내에서 알스퀘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부동산 공급계획 수립에 있어 시장 수요예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또한 알스퀘어의 데이터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PM사들이 제공하는 마켓리포트는 알스퀘어에서도 자체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PM사들은 일부 주요 시설들의 데이터만으로 필요한 마켓리포트를 만들다 보니 정작 절대적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만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알스퀘어는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의사결정에 참고할 만한 수준의 마켓리포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자산관리, 건축 등 알스퀘어가 베트남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생각합니다.

6.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가 신규 투자자분들과 상담을 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셋업 하는 것은 한국에서 하는 것에 비해 열 배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만해도 피식 웃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숨을 쉬며 힘들어 하십니다. 그 분들도 수개월간 베트남을 오가며 시장조사를 선행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얻으며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똑같이 힘든 시간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롭게 베트남에 진출하는 것을 염두하시는 사업가분이 계시다면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여유 있는 자금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항상 베트남 편에 있다'. 주로 행정기관과 일 하면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민원인은 항상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작 재량권자들은 그 속을 몰라주니 답답함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량권자를 재촉한다고 크게 달리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타임라인을 정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협력회사와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협력사라는 의미는 결국 재량권을 가진 기관과 관계가 좋은 업체를 뜻하며 이런 업체는 행정기관의 소개를 통해 소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법인설립 업무를 본인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회사에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행정기관이 소개해주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업체 선정 이전에 업무의 분장과 위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모든 과정이 어렵고 생소하다면 저희 알스퀘어가 처음부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부동산의 구분소유권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들어가며

한국에서는 당연하지만, 베트남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신다면 많은 것들 것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부동산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등기소가 없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3자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건물 정보는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직접 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5년에 한번 조사할 뿐이며 실제 거래금액과 차이가 커 참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거래 과정이 모두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가격 통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 시세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 베트남에서 거의 대부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구분소유권입니다.

베트남에서의 부동산 소유권

구분소유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보면 한 동이 있고,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 있으며, 각 호수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소유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 한 호수를 소유하는 소유권자들은 해당 호수에 대한 유일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어떨까요? 베트남은 아파트를 제외하면 구분소유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한채의 건물, 아파트, 빌딩은 한명 또는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소유권 - 토지사용권증서가 발급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법률상 구분소유권을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에 적용되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주택법, 토지법, 부동산 사업법 등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이 중 부동산 사업법 제5조에 규정된 거래가능한 부동산 유형을 살펴보면 한가지 특이한 변화가 확인됩니다. 먼저 구 부동산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거래가능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현존하는 건물
- 나. 개인 또는 법인이 건설중인 건물 (off the plan buildings)
- 다. 관할 기관에서 거래를 승인한 공공 건물
- 라.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의 양도, 임대 등이 허용된 토지

그리고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거래 가능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존하는 또는 건설중인 주택

나. 교육, 의료, 체육, 문화, 거래, 서비스, 관광, 숙박 또는 산업 및 다목적의 현존하는 건물 또는 건설중인 건물

다. 위 나목의 건물의 개별 층 (Floor Area)

과거 부동산 사업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한가지 규정이 포함되었는데, 여러 목적의 건물 중 개별 층을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현재 해당 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1개 층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한국의 상가 분양과 같이 전용면적을 특정하여 확실한 구분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규정인 부동산 사업법 제14조는 설계단계에서 바닥을 독립적으로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설계 단계부터 규정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오피스, 상가 등을 개발하는 부동산 개발사의 경우 초기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장기임차방식을 이용한 전대차 계약을 통해 소유권에 준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을 통해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차권에 해당하고 건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 임대인인 건물소유주가 파산, 청산, 매각, 계약해지 및 해제 등을 주장하는 경우 보호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전체 건물이 아닌 일부 건물의 매매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베트남 부동산 시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외국투자기업의 투자보고의무를 매우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등록증 등 인허가 변경시에 보고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이행된 경우 진행하던 인허가 업무가 중단되고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게 되는데, 하나하나의 보고서는 부담스럽지 않으나 여러분기, 여러해 그리고 여러 보고서들이 누락된 경우 이를 다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요하고 있어 미리 이부분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0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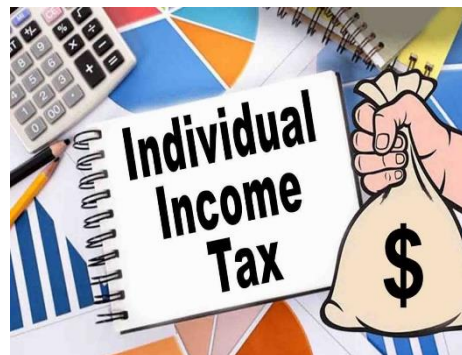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진용 회계사입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을 을사년으로 '뱀의 해'라고 하는데요. 저 역시 뱀띠라서 새해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새해에는 부디 더 이상의 혼란과 어려움이 없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어김없이 1년의 총결산을 하는 시기인 회계감사가 이번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회계법인들 입장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가 바로 회계감사 시즌인 1사분기가 됩니다. 24년 회계감사 시즌 역시 무사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길 기원하며, 이번호에서는 지난달까지 소개 해드렸었던 부가세에 이어서 소득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란?

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인 돈 즉,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일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발생시킨 이익에 대한 세금 및 보유한다는 이유로 내야하는 세금(보유세) 그리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내야하는 세금(거래세) 등 다양한 성격의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벌어들인 소득이나 발생시킨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엄밀한 의미로서 세금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그 중 '개인'이 소득이나 이익을 발생시킨 주체가 되면 이를 개인소득세, 줄여서 '소득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득세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이해 해야 할 사항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다양한 '구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급여소득'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근로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집이나 상가건물 등을 임대인으로서 임대하고 있다면 발생하는 '임대소득', 은행에 예·적금 등을 하고 있다면 발생하는 '이자소득', 주식을 하고 있다면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개인이 임직원으로서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발생하는 '사업소득', 소속 되어있던 조직에서 퇴직을 하면 받게 되는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자산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그리고 앞선 분류에 속하지 '기타소득'등으로 세분화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를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각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 및 세율 등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이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소위 '정산'을 하여 최종 확정신고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의 구분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개인에게 귀속이 되는 소득의 종류가 위와 같이 다양하다는 점을 잘 이해 하셨길 바라면서, 다시 가장 쉽고 흔한 ‘근로소득’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각 개인이 속한 조직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급여, 월급, 봉급 또는 급여로서 지칭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듯 합니다. 오해라 함은, 일반적으로 ‘월급쟁이’로 통칭되는 보통의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소위 ‘유리지갑’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세 과세에 대해 늘 억울함을 토로하는 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사실 그 누구도 내가 땀흘려 열심히 벌어들인 월급에 대해 국가가 강제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리지갑’이라는 투명성이 없다면 많은 ‘월급쟁이’들이 경험하는 매년 2월달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 또는 경제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을 법 또는 하위 규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방법이나 금액기준, 적용시기 등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복잡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국가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사항이기는 하나, 연말정산이 된다는 뜻은 이 복잡한 셈법의 결과 정상시에 만약 내가 소득세를 더 부담하고 있었다면 이를 국가에서 투명하게 관찰하고 점검하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그렇게까지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흔히 목격하게 되는 광경입니다만, 연말정산을 받은 사실을 ‘13번째 월급’이라고 좋아하고 이를 다소 무의미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국가에서 소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아닌 각 개인이 정상시에 더 부담했던 소득세를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니 소중히 잘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이번호에서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득세와 관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호에서도 계속 소득세에 관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새로 적용되는 주요 관세법령 변동사항

FTA활용지원센터 정영균 관세사

2024년 말에 다가옴에 따라 2025년에 새로이 적용되는 관세 및 통관, FTA관련 제도들이 발표 및 적용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공문 및 법령 등을 살펴봄으로써 2025년부터 적용될 주요 수출입, 통관 관련 변동사항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1. 국회 결의안에 따른 전자담배 금지품목 지정

2024년 11월 30일 베트남 의회는 15대 국회 8차 회기에서 결의안 173/2024/QH15를 통과시킨 바 있으며, 해당 결의안에서는 2025년부터 전자담배의 생산, 거래, 수입, 보관, 운송, 사용을 금지하도록 합의했으며, 해당 결의안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발표되지 않아 어떤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지에 대해서 확실하지는 않으나 전자담배와 관련된 HS가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수입금지품목으로 추가되어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담배사업법(09/2012/QH13) 내에서도 전자담배 관련 규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재로서 확인 가능한 것은 전자담배의 구체적인 범위, 처벌 규정 등의 확인이 어려우며, 현재로서 적용 가능한 처벌은 금지품의 생산 및 거래와 관련된 행정처벌규정(98/2020/ND-CP) 제 8조에 따른 행정처벌 및 베트남 형법(100/2015/QH13) 제 190조의 금지품 생산 및 거래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중국산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 반덤핑 세율 폐지

2024년 11월 12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수입된 일부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부과 만료 검토결과를 결정문 3011/QD-BCT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21일자 결정(3162/QD-BCT)에 따라 부과된 일부 냉연 스테인리스제품의 반덤핑 부과 조치는 연장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3. 수출세 및 특혜세율 변동

수출세 및 특혜수입관세에 관련 시행령 개정안(144/2024/ND-CP)이 발표됨에 따라 2024년 12월16일부로 질소비료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신규 수출관세가 적용되며 담배 등 일부 품목의 특혜세율(MFN)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들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세율 변동에 따라 원가 및 마진율 등의 변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2025년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 연장

베트남 의회는 결의안 174/2024/QH15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통신, 정보기술, 금속, 조립식 금속으로 만든 제품 등 43/2022/QH15 제 3조 1.1항 a)에서 명시한 서비스 및 상품군에 대해 8%로 부가가치세를 감경한 시행령(72/2024/ND-CP)을 연장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부가가치세 8%를 적용 받는 물품들은 2025년 6월까지 8%가 지속될 예정이며, 특별한 추가 변동이 없는 한 7월부터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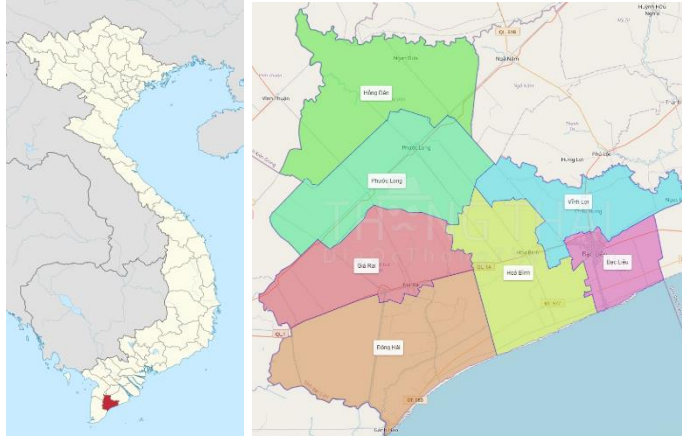
이외에도 2025년~2029년 재수출, 임시수입 등이 금지된 폐기물 목록(18/2024/TT-BCT), 식물검역 대상 물품 발표(14/2024/TT-BNNPTNT) 등 수출입분야에서 다양한 법령 등이 개정, 발표된 바 있으니 해당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 2025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리스크 없는 수출입을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베트남 남부 유망 투자지-박리에우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2,669km ²	▪ 인구: 921,809명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리에우성은 까마우(Ca Mau) 반도에 위치한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해안 지방성임 ▪ 박리에우성은 북쪽으로는 하우장(Hau Giang)성 및 끼엔장(Kien Giang)성, 동북쪽으로는 석짱(Soc Trang)성, 동남쪽으로는 동해, 서쪽 및 서남쪽으로는 까마우(Ca Mau)성과 인접해 있음 ▪ 호치민시에서 280km, 켄터(Can Tho)시에서 120km 떨어져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1A 국도, Quan Lo-Phung Hiep 국도, Nam Song Hau 국도, 호치민 로드 ▪ 수로: Bac Lieu - Ca Mau 운하, Quan Lo - Phung Hiep 운하, Ganh Hao 강, Ganh Hao - Ho Phong 운하, Gia Rai - Pho Sinh 운하, Ho Phong - Chu Chi 운하 ▪ 항구: Ganh Hao 항구, Vinh Hau A 항구 	
GRDP 성장률 / 1인당 GDP('23년)	▪ 전년대비 GDP 성장률: 7.24%/ 성 1인당 GDP: US 2,609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출액: US 10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8.17%), 서비스업(9.7%), 농수산업(4.89%) 	
산업구조('23년)	▪ 공업/건설업 19.64%, 서비스업 35.27%, 농수산업 40.14%	
노무여건('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연령 인구 비율: 52.3% ▪ 노동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67.36% ▪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25.63% 	
최저임금('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리에우시: VND4,410,000 = US176 달러(2급지) ▪ 자라이(Gia Rai) 군, 호아빈(Hoa Binh) 현: VND3,860,000 = US154 달러(3급지) ▪ 타 지역: VND3,450,000 = US138 달러(4급지) <p>* 계약상 최저 임금에 관한 제 74/2024/ND-CP 의결서(2024년 7월 1일) 따름</p>	
외국인투자 ('23.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리에우성의 총 외국인투자는 18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47억 달러 ▪ (한국) 박리에우성에의 총 한국투자는 2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6.9백만 달러, 한국은 성에 투자한 9개의 국가 중 투자액 기준으로 6위, 투자 건수 기준으로 4위 규모임 	

투자환경



박리에우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도로)

- 3개의 중요 국도: 1A 국도, Quan Lo-Phung Hiep 국도, Nam Song Hau 국도
- 현재 박리에우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도로를 시행하고 있음:
- ✓ 박리에우성을 관통하는 Rach Soi – Ben Nhat, Go Quao – Vinh Thuan 구간을 포함한 호치민 로드 건설 프로젝트
- ✓ 메콩 삼각주 지역을 연결되는 노선, 호치민 로드와 연결되는 Ganh Hao - Gia Rai - Pho Sinh - Canh Den 노선 (Pho Sinh – Canh Den 구간) 투자 프로젝트
- ✓ Phuoc Long 현 Phuoc Long 군 건설 프로젝트
- ✓ Ha Tien 국제 국경 관문과 캄보디아를 연결하는 Bac Lieu - Hau Giang - Ha Tien 고속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국경 무역을 확대할 예정임

(수로)

- 수로 운송 시스템에는 23개의 운하가 수직 및 수평 경로로 연결되어 있어 500톤 이상 및 이하의 선박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음. 박리에우성의 국내외 화물 순환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국가 수로:
- ✓ Bac Lieu - Ca Mau 수직 운하 경로
- ✓ Quan Lo - Phung Hiep 운하 경로
- ✓ Ganh Hao 강
- ✓ 동해와 연결되는 Ganh Hao - Ho Phong 운하 경로
- ✓ Gia Rai - Pho Sinh, Ho Phong - Chu Chi 등 수평 운하 경로

(항만)

- 2050년 비전과 함께 2021~2030년 베트남 항만 시스템 개발 마스터플랜 승인에 대해 국무총리의 제 1579/QĐ-TTg 의결서(2021.09.22)에 따라, 박리에우성 항구는 유형 III 항구에 속하며 항구 그룹 번호 5로 계획됨. 이에 따라 2030년까지 화물 처리량은 6,400만~8,000만 톤(컨테이너60만~80만 TEU), 승객 수는 610만 ~ 620만 명일 것으로 기대됨. 2050년 비전은 약 5.5~6.1%의 평균 성장률로 화물 처리 수요를 충족하며 승객 증가율이 평균 1.1~1.25%이고 메콩델타지역 관문항구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 박리에우 항구 인프라 규모
- ✓ Ganh Hao 항구
 - 계획 범위: Ganh Hao 강어귀의 토지 및 수역
 - 기능: 일반 부두, 벌크 화물 부두, 액체/가스 화물 부두 및 여객 터미널이 있으며, 성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함.
 - 선박 크기: 최대 5,000톤
- ✓ Vinh Hau A 항구
 - 계획 범위: Vinh Hau A 마을 바다의 토지 및 수역
 - 기능: Bac Lieu LNG 발전소를 위한 액체/가스 터미널
 - 선박 크기: 최대 150,000톤
- ✓ 부표 부두, 환적을 위한 정박지, 폭풍 대피소: Ganh Hao, Vinh Hau 지역 및 기타 적격 지역

➤ 관광

- 박리에우성의 관광 시설에 대한 투자와 투자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해양관광을 위한 Bac Lieu-Hon Trung-Con Dao라는 고속 여객선 운항 개발, 풍력 발전 시설 관광 연계 생태 관광지역 개발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 많은 대규모 관광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 상품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를 가진 상품들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지역 간 관광 개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현재까지 박리에우성은 메콩 삼각주 관광협회가 인정한 11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으며,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전형적인 관광지가 있는 성임. 특히, 특산품과 전통 축제도 매우 매력적이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음. 이는 박리에우성이 지역 및 국가 관광 지도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문화 및 역사적 전통이 풍부한 박리에우성은 점점 더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역사 관광, 리조트 관광, 생태 관광, 해양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통해 많은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함.



호남(Ho Nam) 생태 관광지역



Nha Mat 관광지역



박리에우 풍력발전소



Hung Vuong Bac Lieu 광장

➤ 천연자원

- 풍부하고 다양한 천연자원과 염수, 담수, 기수 등 세 가지 생태계를 갖추어 농업과 수산업, 특히 고밀도 양식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우 양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56km의 해안선과 약 40,000km²의 광활한 어장을 보유한 박리에우성은 수산 자원이 풍부하여 어업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풍부한 새우, 게, 어류 자원은 수산업 물류 서비스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 또한, 복잡한 운하망과 바다로 연결되는 여러 큰 하구는 경제 사회 발전, 특히 해양 경제 발전, 국제 협력 확대, 안보 국방 강화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도 함.
- 해안 지역은 풍속이 초속 7m에 달하는 강하고 안정적인 바람과 연간 2,900시간 이상의 풍부한 일조량, 1일 5kWh/m² 이상의 높은 일사량을 보유하고 있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투자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인센티브 지원 정책

(법인 소득세)

▪ 법적 근거

-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투자지역	법인세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박리에우시를 제외한 박리에우성의 모든 현과 군(Lang Tram 공단, Ninh Quoi 공단을 포함)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박리에우시(Tra Kha 공단, 박리에우 공단을 포함)	- 기본 세율 20% - 첫 10년간 세율 17%(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 2023년 12월 말까지 박리에우성 대상 총 외국인 투자는 18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47억 달러 이상 투자 금액이 등록되어 있음.

No.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 (\$)
1	박리에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박리에우 LNG 화력발전소 소속)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싱가포르	40억
2	박리에우 풍력 발전소 단계 III	풍력	태국	286.4백만
3	일본 박리에우 풍력발전소 - 단계1 (Dong Hai 2 풍력발전소 계획에 따름)	풍력	일본	110백만
4	Viet I-Mei Frozen Foods Co., Ltd	냉동 해산물 가공	대만	30백만
5	박리에우 상업용 새우 양식장	상업용 새우 생산	태국	28.7백만

No.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 (\$)
6	GO! Bac Lieu 쇼핑센터 프로젝트	쇼핑센터	태국	18.3백만
7	수출용 농산물 및 해산물을 가공 공장	양식업 및 해산물 가공	일본	8.9백만
8	의류 생산 및 가공 공장 프로젝트	의류 생산 및 가공	한국	6.5백만
9	첨단 기술을 적용한 수산 품종 및 상업용 새우의 양식, 생산, 가공, 거래	수산 품종, 새우, 게 등의 생산 및 거래	호주	6.1백만
10	수산물 및 새우 양식, 생산	수산물 및 새우 양식, 생산	호주	3.4백만

▶ 한국 투자

- 2023년 12월 말까지 한국투자는 2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약 6.9백만 달러가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은 성에 투자한 9개의 국가 중 투자액 기준으로 6위, 투자 건수 기준으로 4위를 차지하였음.

No.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금 (\$)
1	의류 생산 및 가공 공장 프로젝트	의류 생산 및 가공	6,500,000
2	롯데리아베트남 지사	식품 및 음료 가공	377,000

공단현황

▶ 주요 공단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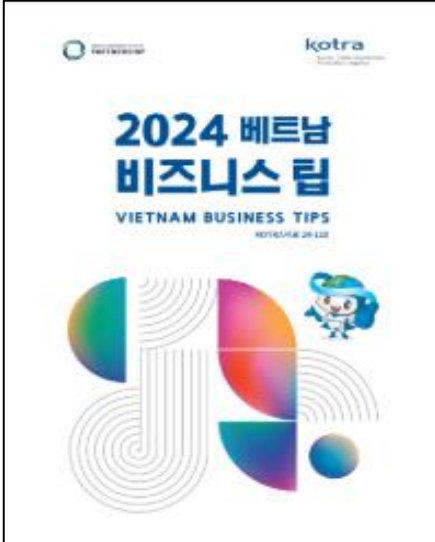
공단명	면적(ha)	주요정보	투자자/개발사
자카(Tra Kha) 공단	64.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년도: 2020 입주율: 94.67% 토지 임대료: ~0.07USD/m2/년 인프라 사용 비료: ~0.19/m2/년 투자유치분야: 의류 및 가죽 신발 산업; 전기, 전자제품; 와인, 맥주 및 음료 생산; 농산물 가공, 건축자재, 기타 청정산업 등 	박리에우 산업단지 서비스 센터
랑짬(Lang Tram) 공단	94.19	해당 부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며, 산업단지의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있음.	모색 중임
닌꾸어이(Ninh Quoi)	257		
박리에우(Bac Lieu) 공단	500		

투자 유망분야

- 향후 박리에우성은 기존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투자 유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음.
 - ① 첨단 농업에 초점을 맞춘 농업 개발, 새우와 쌀 생산의 효율성 향상;
 - ②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포함) 및 가스 발전을 중심으로 한 산업 개발;
 - ③ 관광 개발;
 - ④ 고품질 무역 서비스-교육-의료 부문 개발;
 - ⑤ 국방 및 안보 보장과 관련된 해양경제 개발.
- 그중 박리에우성을 베트남의 청정에너지 중심지, 베트남 새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및 첨단 농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유치를 촉진하기로함
- 한국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박리에우성은 의류, 전자부품 생산, 전자장비, 인프라, 재생에너지, 하이테크 농업, 특히 하이테크 응용 새우 양식업, 농림수산물 가공업, 지원산업 등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 유치함.
- 박리에우성은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최고 수준의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며, 투자자와 함께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을 약속함. 특히, “원활하고 신속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추가 비용은 절대 없다”는 것을 약속함. 또한, “항상 투자자와 함께한다”는 원칙 아래, “기업이 하기 쉬운 일은 기업이 하고, 어려운 일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임.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	연락처/이메일
박리에우성 기업 지원, 창업 및 투자 촉진 센터 (박리에우성 기획투자청 산하)	Mr. Mai Hai Giang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84-903 020 040 • 주소: Nguyen Tat Thanh Street, Ward 1, Bac Lieu City



2024 베트남 비즈니스 팁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법률
2. 세법
3. 통관



2024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보고서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글로벌 스마트시티 동향
2. 스마트시티 국가별 현황 및 정책유통채널
3. 글로벌 스마트시티 진출전략
4. 참고사항



2024 베트남 국가조사 보고서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국가 및 시장정보
2. 식품 유통현황
3. 수출품목 및 소비트렌드
4. 수출절차
5. 비관세장벽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4. 11. 20 기준 누계		2024. 1. 1 ~ 11.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10,085	89,113.11	368	2,328.46	3,891.44
싱가포르	3,861	82,295.47	408	5,784.67	9,139.10
일본	5,473	77,639.43	245	1,691.61	3,614.07
대만	3,252	40,870.90	173	1,071.78	1,835.81
홍콩	2,765	37,847.22	335	1,956.74	3,640.20
중국	5,022	30,132.06	859	2,206.80	3,883.40
버진아일랜드(영)	927	23,874.21	16	217.28	583.06
네덜란드	451	14,619.52	20	60.48	179.61
태국	755	14,317.43	26	61.39	178.52
말레이시아	757	12,948.99	41	80.19	159.98
미국	1,417	11,940.17	101	178.07	259.61
기타	6,955	61,100.07	97	1,749.71	4,013.47
전체 합계	41,720	496,698.59	3,035	17,387.19	31,378.26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4. 11. 20 기준 누계		2024. 1. 1 ~ 11.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7,754	303,874.71	1,030	11,472.87	20,197.34
2	부동산 경영	1,204	72,547.35	72	3,392.94	5,626.13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6	41,674.41	3	1,015.79	1,120.21
4	호텔, 외식서비스	1,003	13,836.31	36	20.91	101.87
5	건설	7,987	12,016.82	1,070	797.71	1,367.66
6	도소매, 유지보수	1,842	10,940.51	50	42.36	628.74
7	물류운수	1,187	6,601.10	102	338.58	462.34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769	5,651.74	332	118.99	1,018.86
9	정보통신	3,109	5,205.72	217	37.16	248.42
10	채광	106	4,889.24	1	0.59	2.81
11	교육, 양성	706	4,638.26	33	26.95	39
12	농, 임, 수산	537	3,879.28	11	64.46	94.65
13	예술 오락	149	3,132.45	7	7.62	13.15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7	3,049.18	1	0.02	-79.71
15	의료와 사회복지	159	1,766.90	2	2.2	95.02
16	행정, 지원 서비스	663	1,116.74	56	39.6	150.78
17	금융, 은행, 보험	101	932.54	6	4.08	122.07
18	기타 서비스	154	934.24	6	4.33	168.93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41,720	496,698.59	3,035	17,387.19	31,378.26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11
수출	3,363.1	3,713	3,546	3,699(+14.4)
수입	3,322.3	3,589	3,263	3,456(+16.4)
무역수지	40.80	124	280	24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1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537	57,994	52,379	50,242(+3.2)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0,828	55,536	57,336	65,226(+26.3)
기계/플랜트 및 부품	38,344	45,751	43,128	47,805(+21.6)
섬유/직물제품	32,753	37,566	33,329	33,650(+10.6)
신발류	17,751	23,895	20,237	20,758(+12.9)
원목 및 목제품	14,809	16,011	13,467	14,699(+21.2)
철강제품	11,795	7,993	3,973	4,088(+12.0)
수송수단 및 부품	10,616	11,988	14,157	13,765(+6.0)
수산물	8,886	10,923	8,971	9,167(+11.5)
원사(Yarn)	5,612	4,713	4,355	4,022(+0.7)
기타	87,379	98,934	103,339	106,512
합계	336,310	371,304	354,671	369,93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11
전자제품 및 컴퓨터	75,440	81,884	87,965	97,731(+22.4)
기계/플랜트 및 부품	46,296	45,192	41,579	44,209(+17.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434	21,126	8,749	9,429(+17.6)
의류(원단)	14,324	14,706	13,016	13,572(+14.3)
플라스틱 원료	11,685	12,387	9,755	10,603(+18.4)
각종 철강	11,523	11,920	10,425	11,505(+20.3)
기타 비금속	8,611	9,253	7,626	8,653(+24.8)
플라스틱 제품	7,959	8,119	7,508	8,015(+16.9)
화학제품	7,627	9,144	7,605	7,027(+1.3)
화학물질	7,735	8,747	7,726	7,575(+7.8)
기타	119,600	136,423	124,419	127,303
합계	332,234	358,901	326,373	345,62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11
1	미국	77,077	96,293	109,388	97,020	108,974
2	중국	48,905	56,009	57,702	61,207	55,057
3	한국	19,107	21,945	24,293	23,498	23,345
4	일본	19,284	20,128	24,232	23,314	22,434
5	홍콩	10,437	11,996	10,936	9,631	11,262
6	네덜란드	6,999	7,686	10,430	10,241	11,830
7	독일	6,644	7,286	8,968	7,400	7,203
8	인도	5,235	6,259	7,961	8,498	8,379
9	태국	4,917	6,161	7,476	7,192	7,153
10	영국	4,955	5,765	6,065	6,345	6,936
	기타	79,094	96,782	103,853	100,325	107,361
	합계	282,654	336,310	371,304	354,671	369,93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11
1	중국	84,187	109,874	117,866	110,644	130,514
2	한국	46,895	56,155	62,088	52,511	51,125
3	대만	16,701	20,772	22,631	18,421	20,726
4	일본	20,341	22,648	23,373	21,638	19,578
5	미국	13,713	15,270	14,470	13,822	13,563
6	태국	10,968	12,564	14,092	11,797	11,237
7	오스트레일리아	4,677	7,946	10,144	8,533	6,983
8	말레이시아	6,575	8,148	9,124	7,809	8,334
9	인도네시아	5,382	7,587	9,641	8,728	9,457
10	인도	4,435	6,950	7,086	5,864	5,289
	기타	48,826	64,320	68,386	66,606	68,816
	합계	262,700	332,234	358,901	326,373	345,62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11
수출	48,510(+0.7)	56,729(+16.9)	60,972(+7.5)	53,479(-12.3)	53,403(+9.3)
수입	20,579(-2.3)	23,965(+16.5)	26,726(+11.5)	25,941(-2.9)	25,985(+9.0)
무역수지	27,931	32,763	34,246	27,550	27,418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11
반도체	11,501(7.2)	14,026(22)	16,240(15.8)	12,729(-21.6)	16,480(+46.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552(19.9)	12,050(26.1)	12,527(4.0)	12,350(-1.4)	10,347(-9.7)
석유제품	1,196(-45.5)	1,157(-3.2)	3,733(222.3)	3,327(-10.8)	2,517(-22.0)
무선통신기기	3,460(18)	3,315(-4.2)	2,358(-29.2)	2,166(-8.1)	2,317(+16.8)
합성수지	1,615(-0.6)	2,415(49.5)	2,581(6.9)	2,001(-22.5)	2,146(+18.0)
기구 부품	2,241(0.5)	2,405(7.3)	2,194(-8.8)	1,861(-15.1)	1,642(-4.2)
플라스틱 제품	1,115(-7.8)	1,174(5.3)	1,067(-9.2)	1,021(-4.2)	973(+4.1)
철강판	1,052(-9.1)	1,267(20.4)	1,069(-15.6)	887(-17.0)	883(+8.6)
기타기계류	669(-14.5)	957(43.0)	793(-17.1)	801(+1.0)	616(-17.5)
계측제어분석기	686(-18.6)	717(4.5)	815(13.6)	734(-9.9)	537(-21.9)
기타	15,437	17,039	17,242	15,612	14,945
합계	48,511(0.7)	56,729(16.9)	60,972(7.5)	53,489(-12.3)	53,403(+9.3)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11
무선통신기기	4,980(-12.5)	5,579(12)	5,986(7.3)	4,543(-24.1)	4,330(+9.0)
의류	3,145(-13.7)	3,393(7.9)	3,840(13.2)	3,542(-7.7)	3,382(+1.5)
컴퓨터	1,270(87.1)	1,659(30.6)	1,948(19.1)	2,075(+6.6)	2,155(+14.4)
반도체	561(18.9)	750(33.8)	787(5.0)	2,053(+160.9)	2,665(+43.5)
산업용 전기기기	574(20)	725(26.2)	970(33.8)	1,396(+44.0)	1,546(+21.2)
신변잡화	1,029(-2.2)	984(-4.4)	1,250(27.2)	1,252(+0.1)	1,103(-2.3)
목재류	632(-3.9)	755(19.5)	942(24.8)	722(-23.3)	611(-8.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27(-14.2)	876(-14.7)	783(-10.5)	657(-15.9)	528(-14.5)
기구부품	481(-5.9)	624(29.6)	654(4.8)	571(-12.7)	591(+13.2)
영상기기	391(11.8)	426(8.9)	441(3.6)	409(-7.2)	380(+0.5)
기타	6,474	8,161	9,103	8,718	8,694
합계	20,579(-2.3)	23,966(16.5)	26,726(11.5)	25,938(-2.9)	25,985(+9.0)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3~2024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3년(연간)	%	6.72	5.05	2.9	3.8	1.9	5.6	
	2024년 2Q	%	5.66	5.05	3	5.8	2.2	6.4	
	2024년 3Q	%	6.93	4.95	5.4	5.3	3	5.2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N/A	N/A	125.9	127.3	97.5	N/A
		2024년 9월	-	N/A	N/A	137.4	113.6	92.76	N/A
		2024년 10월	-	N/A	N/A	133.5	135.8	73.41	N/A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3년(연간)	-	N/A	N/A	N/A	47.7	51.8	51.5
		2024년 9월	-	47.3	49.2	51	49.5	50.4	53.7
		2024년 10월	-	51.2	49.2	50.8	49.5	50	52.9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3년(연간)	-	N/A	N/A	113.6	N/A	56.7	N/A
		2024년 9월	-	N/A	123.5	117.1	N/A	55.3	N/A
		2024년 10월	-	N/A	121.1	116.8	N/A	56	N/A
	소매판매	2023년(연간)	-	9.6	N/A	N/A	N/A	N/A	4.5
		2024년 9월	-	7.6	4.8	N/A	N/A	N/A	1.2
		2024년 10월	-	7.1	1.5	N/A	N/A	N/A	1.3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3.25	N/A	4.8	N/A	N/A	7.9
		2024년 9월	%	2.63	1.84	2	1.8	N/A	1.9
		2024년 10월	%	2.89	1.71	1.4	1.9	N/A	0.2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3년(연간)	%	N/A	N/A	N/A	10.9	N/A	N/A
		2024년 9월	%	N/A	N/A	N/A	N/A	N/A	N/A
		2024년 10월	%	N/A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3년(연간)	%	2.28	N/A	1.9	3.4	1	3.1
		2024년 2Q	%	2.29	N/A	2.1	3.3	1.1	3.7
		2024년 3Q	%	2.24	N/A	1.9	3.2	1	4.1
무역	수출증가율	2023년(연간)	%	△4.4	△11.3	△10.1	△8.0	△1.00	△3.4
		2024년 9월	%	10.7	6.44	0.1	△0.3	1.12	△7.6
		2024년 10월	%	10.1	10.25	△2.4	1.6	14.6	△5.5
	수입증가율	2023년(연간)	%	△8.9	△6.6	△13.4	△6.4	△3.75	4.1
		2024년 9월	%	11.1	8.55	0.9	10.9	9.88	9.9
		2024년 10월	%	13.6	17.49	△1.1	2.6	15.88	11.2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 전망치는 *표시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 ©KOTRA >